

# “적법절차” vs “독단운영” 이사해임 놓고 대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집행부-비대위 갈등 왜?

## 국립공원 승격 맞물려 마찰 심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사 해임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대위는 정식적인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이사 해임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19일 열린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선임에 대해 무보협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한다”며 법원에 신입 본부장에 대한 선임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부는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 8명을 해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

서 “지난해 2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이 훼손됐다. 일방적으로 이사를 해임했다”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집행부도 지난 4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단체 운영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결코 일방적인 운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22일 열린 정기총회가 무산됐으며, 지난 4일 정기총회에서 89명의 회원이 참석해 4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용역이 동원돼 비대위 인사를 막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비대위는 집행부 사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6년간 내부 분열 없이 잘 이끌어오던 무보협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

어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총회나 이사회를 거쳐지 않은 이사에 대해선 자격 없음, 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 사들에겐 임기가 만료됐음을 통보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우리의 일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외부에서 이런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뒤 집행부 측 인사들로 새로 이사진을 꾸렸다”며 “그간 우리가 무등산 개발이 아닌 보호를 기치로 활동을 펼쳐왔는데, (집행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온천·펜션·리조트 개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무보협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민 중심으로 1987년 결성 78개 단체 소속 ‘무등산 지킴이’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1987년 5월 22일 광주 YWCA 강당에서 태어났다. 무등산 훼손을 보지 못한 광주시민이 중심이 돼 시작됐다. 현재는 광주지역 78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됐으며 회원수만도 1만 명에 달한다.

창립 초기 무등산 보호를 위해 ▲무등산 쓰레기 버리지 말고 주워오기 ▲취사 대신 도시락 휴대하기 ▲계곡에서 세제류 쓰지 않기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무등산 아끼고 사랑하기 등 5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1990년 12월에는 광주시 등과 연계해 해맞이 자제와 질서유지

계몽운동을 펼쳐 다음해인 1991년부터 모닥불이 없어지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무등산 공유회운동 등을 통해 무등산의 난개발을 막고 보존을 위해 앞장서왔다. 최근엔 수많은 등산객들이 무등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해지자 등산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무등길’을 조성하기도 했다.

현재 무보협은 무등산의 자연문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청소년 환경학교·생명숲 학교·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범시민축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익명 독지가 3억 이어 또 2억 기탁

보성군 장학재단에... “어려운 학생들 위해 써달라”

“저희도 어떤 분이 이렇게 거액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보내는 사람이 ‘박님’이라고 돼 있어 성이 박씨일 것이라곤 추정할 뿐입니다.”

보성군 장학재단 기금모금계좌에 2억원이 송금된 것은 지난 4일 오전. 송금 후 10여 분 뒤 재단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자신을 2억원 기부 당사자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 독지가는 자신을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알아내려 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86억8000여원의 기금을 모아 내년까지 목표액 1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군은 ‘박님’이 보성에서 태어났거나 보성이 부모의 고향으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부를 일군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이 5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것은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순수한 열원과 애정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익명의 기부천사를 비롯한 모든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뜻이 되새겨지지 않도록 보성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86억8000여원의 기금을 모아 내년까지 목표액 1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순신대교 관리비 여수·광양시 부담 가중

### 국가관리 개정안 지연... 5억~100억 부담 정부 반대 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5월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주체를 국중로 규정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며 올 상반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법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더라도 사후 유지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통한 이순신 대교 등 특수교량의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인 여수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순신 대교는 개통 초기 연 5억원에서 10년 뒤에는 100억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등이 대부분이나, 5년 후부터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작업 등 관리비 규모

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 등은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전국에 산재한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우려,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는 조만간 이순신 대교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의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여수시 등은 현재 시도(市道)인 산단 진입도로를 ‘국도(國道)’로 승격,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반대가 큰 만큼 해상교량이나 국가산단 등으로 제한해 지원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李 前대통령 퇴임 9일만에 고소·고발돼

### ‘내곡동 땅·불법사찰’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정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서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

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 등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국제청에 과세자료만 통보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회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



### 생활 속 문화공간 광주지하철 예술무대

5일 오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2013 광주지하철 예술무대' 개막 공연이 열리고 있다. 하남농협 주부대학생들이 춤과 이도령의 사랑놀음을 선보이고 있다.

5일 오후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2013 광주지하철 예술무대' 개막 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 끼시 → 뼈째회, 블랙푸드 → 검정먹거리로

### 국립국어원, 순화어 선정

“뼈째 손질한 전어 뼈째회(세끼시)는 씹을수록 고소하다.” 국립국어원은 ‘블랙푸드’(black food)와 ‘솔푸드’(soul food)의 순화어로 ‘검정먹거리’와 ‘위안음식’을 각각 선정했다. 또 작은 생선을 손질해 통째로 잘게 썰어낸 생선회를 뜻하는

‘세끼시’(‘세고시’라고도 함)는 ‘뼈째회’로 다듬었다.

국립국어원은 KBS와 함께 말터(malteo.korean.go.kr) 누리집을 통해 이 세 단어를 대신할 순화어를 공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뼈째회, 검정먹거리, 위안음식을 순화어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블랙푸드는 검은색을 띤 식품을 일

컹는 말. 솔푸드는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주는 음식 또는 자신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음식을 가리킨다.

국립국어원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외국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대신할 순화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다. 선정된 순화어를 먼저 제안한 사람 등에게는 상품권을 준다. 지금까지 선정된 순화어는 말터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MBA Business School / JD Law School

# 獎學生 第4期生 募集

**美國 TOP 10 頂上圈 難關에 果敢히 挑戰하는 靑年! 찾습니다**

### 民族의 尊嚴과 榮光을 위하여

- 碧峯(벽봉)獎學會 設立에 부치는 마음 -

本人은 碧峯이란 號를 가진 大韓民國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韓國에서 태어나 現在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在日僑胞입니다. 異國에 살면서 恒常 생각했던 點은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고 榮光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過去 우리 民族은 견디기 어려운 酷毒한 屈辱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祖國을 더욱 繁榮시키고 富強한 國家로 發展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아야 하며 正心성의 面에서도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民族의 크나 큰 希望을 確實하게 또한 빠른 時日內에 達成하려면, 國際的으로 活動할 有能한 人材의 輩出이 가장 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本人은 本人의 所信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世界에 獻身하여 왔고, 이제는 國際的인 感覺을 지니고 國際社會에서 堂堂하게 活躍할 젊은이를 育成하는 事業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나마 이 事業에 盡力하는 것이 本人이 民族을 爲해서 할 수 있는 最上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碧峯獎學會를 設立, 2009年 學期부터 民族의 尊嚴을 뜨겁게는 獎學事業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뜻이 비록 큰 바디의 작은 물 한방울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民族과 祖國의 發展에 보탬이 되면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碧峯獎學會의 趣旨이며 精神입니다.

**獎學會 創立者 碧峯**

### 選拔概要

- 募集人員 : 年間 3명(MBA 課程 2명, JD 課程 1명)
- 獎學金
  - MBA 課程은 1年에 美貨 \$40,000(2년간 \$80,000)
  - JD 課程은 1年에 美貨 \$40,000(3년간 \$120,000)
- 應募資格
  - 美國 上位 10位圈內 大學의 MBA 課程 또는 JD 課程에 合格한 者
  - 大學 全學年 成績이 平均 B學點 以上인 者
  - 選拔된 當該年度부터 獎學金을 受惠받을 수 있는 者
- 提出書類
  - 履歷書 ○ 大學 成績 證明書 ○ 保護者 및 世帶主의 所得(納稅)證明書
  - MBA 또는 JD 課程 合格證 ○ 指導教授 또는 職場上司의 推薦書
  - 自己紹介書(進學動機 및 將來의 希望, A4用紙 3매 以內)
  - ※ 모든 英文 書類는 韓國語 翻譯本을 添附 바랍니다.
- 接受處
  - (우편번호110-776) 서울特別市 鍾路區 慶雲洞 89-4 SK허브 101-713號 統一日報社 서울支社內 碧峯(벽봉)獎學會
- 接受期間 및 銜術方法
  - 接受期間 : 2013年 4月 29日 ~ 5月 3日(登記郵便은 5월 3日 17:00까지 必着)
  - 第1次 전형 : 書類審査(1次 合格者에 限하여 2次 전형 日時와 場所를 通知)
  - 第2次 전형 : 選考委員 面接(5月 10日 實施 豫定)

### 其 他

1. 獎學生 選拔은 德望있는 분들로 構成된 選考委員會에서 客觀的으로 進行되며, 提出된 書類는 返還하지 않습니다. 獎學生 募集과 關聯한 自世한 事項은 碧峯獎學會의 홈페이지(http://www.byeokbong.or.kr)를 參照하시거나, 서울事務所 李光衡 事務所長 (☎ 02-725-4161, lkh3849@hanmail.net)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2. 支給되는 獎學金은 辨濟義務가 없습니다.
3. 家計에 餘裕가 있는 家庭의 子女분 혹은 他 獎學金 申請이 가능한 學生은 應募를 望하지 않습니다. 家計가 어려운 學生으로서 또 強한 向學心을 갖고 使命感에 넘치는 젊은이를 當 獎學會는 應援하고자 합니다.

【제1기 병역장학생】

조근호 (Columbia Law School)  
김재인 (Harvard Law School)  
최유진 (Cornell Univ. Law School)  
우재영 (The Univ. of Texas at Austin MBA)  
강혁인 (U.C. Berkeley Haas MBA)

【제2기 병역장학생】

곽상협 (Harvard Law School)  
조태호 (Univ. of Michigan Law School)  
유영호 (Wharton School MBA)  
배석진 (Univ. of Chicago Booth MBA)

【제3기 병역장학생】

이보람 (Harvard Law School)  
장원일 (Columbia Law School)  
배수현 (Harvard MBA)  
정주현 (Harvard MBA)

## 碧 峯 獎 學 會

會長 김현중 (前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